

황성규 제2차관, “지하철 개통 전부터 빈틈없는 방역관리” 강조

- 개통 앞둔 진접선 별내가람역 12일 방문하여 방역·안전에 총력 당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진접선* 별내가람역을 1월 12일 방문하여 방역대책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* (현황) 4호선 연장(당고개~진접, 14.9km)으로 종합시험운행 中(1분기 내 개통예정)
(효과) 서울역~남양주 출퇴근시간을 버스대비 68분, 승용차대비 18분 단축

- 이날 황 차관은 역사 내에서 진접선 건설기간 동안 수행해온 건설 현장 방역관리현황과 개통 이후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보고받은 뒤,

-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-19 상황이 엄중한 만큼, “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방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- 특히, “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은 방역관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교통수단”이라면서, “진접선 개통 전 수립한 방역대책이 개통 후에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”라고 덧붙였다.

- 마지막으로 황 차관은 “지하철은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”이라고 언급하면서,

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, 노선 개통 전 지하철 운행과 관련한 안전점검도 철저히 해줄 것”을 거듭 당부했다.

2022. 1. 12.

국토교통부 대변인